



아동간호학

간호학부 김신정



4장. 영아 간호

▪ 영아기 : 출생 후 1개월부터 12개월 까지

1) 신체적 발달

- 영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동안 신체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로 제1급성장기.
- 생후 3~4개월이 되면 출생시 체중의 2배가 되고 생후 12개월이면 3배가 됨.
- 생후 12개월에는 뇌의 크기도 출생시에 비하여 1.5~2배 가량 거지게 됨.
- 생후 수 개월 동안은 일시적으로 눈동자가 코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음.(가성사시 : pseudostabismus)

- 생후 1개월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잠깐 머리를 들 수 있고 생후 4개월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90° 들 수 있음.
- 생후 7~8개월에는 '배밀이'라 하여 배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 기다.
- 도움이 없이 잘 걷는 것은 13~15개월에 가능.
- 생후 10~11개월에는 집게손가락으로 접근하여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물건을 집는다.(pincer grasp)



2) 심리사회적 발달

- 신뢰감 발달은 일차적으로 배고픔의 발생과 이에 대한 해결(수유)을 통해 이루어짐
- 기질의 세 가지 유형 :
 - ①기르기 쉬운 경우로 40%의 영아들이 해당
 - ②키우기 어려운 경우로 전체 영아의 10%정도가 이 범주에 해당,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영아는 학대를 받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할 수 있음
 - ③ 순한 면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로 15%정도라고 알려짐.



3) 정신사회적 발달

- Erikson에 의하면 영아기 동안 달성해야 할 과제는 신뢰감(trust).
- 생후 1~2개월이 되면 주위의 자극(얼러주거나 수유할 때 등)에 의해 미소짓는 사회적 미소가 나타남



4) 인지발달

- 감각 운동기에 물건의 영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

① 1차적 순환반응기 : 물건의 영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눈 앞에 있는 물건을 치워버리면 그 물건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찾지 않음, 이 시기에는 영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공하며 몸을 움직여서 생기는 결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보고 만지고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어야 함



- ② 2차적 순환반응기 : 목적 있는 행동을 하는 시기, 엄마의 웃음을 보기 위해 더 재롱을 떠다. 이 시기에는 물건의 영속성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물건을 숨겼다 찾아주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 손바닥 뒤에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의 놀이가 도움이 됨
- ③ 2차적 협동반응기 : 영아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며, 장애물이 있을 경우 목적인 바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치울 수 있음

5) 언어발달

생후 2~3개월이 되면 기분이 좋거나 어른이 말을 걸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웅얼이를 함



1. 영아의 건강증진

1) 영양

- 영아의 소화기능은 아직 미성숙하며, 췌장효소인 아밀라아제는 생후 4~6개월까지는 분비가 부족하므로 이 시기 이전에는 곡류 등의 소화가 어려움
- 생후 4~6개월 이전의 고형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신장용질의 증가와 비만을 유도할 수 있음
- 생우유는 철분과 아연, 비타민c가 부족한 식품으로 과량 섭취시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므로 12개월 이전의 영아에게 주식이 될 수 없음
- 6~12개월 동안 모유나 철분강화 조제유가 주식이어야 함, 이유식이란 액체 음식만 섭취하던 영아가 나중엔 밥을 먹기 위해서 미리 고체 음식을 먹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생후 4~6개월이 되면 이유식의 보충이 요구됨



- 영아에게 언제부터 이유식을 줄 수 있는냐는 발달상태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생리적인 밀어내기 반사가 사라지고 삼키는 기술이 조절되어 이유식을 섭취해도 질식할 염려가 없이 쉽게 삼킬 수 있으며, 위장관이 성숙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위험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이유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임
- 이유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것이 가장 좋는데 다양한 맛의 경험과 씹는 행동은 영아의 두뇌발달에 도움을 줌
- 반드시 수저를 이용하여 떠먹여 주도록 하고 8개월 이후에는 아기에게 수저를 주어 스스로 먹는 연습을 하도록 함
- 새로운 음식의 시도는 영아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모유나 조제유를 먹기 전에 준다.



- 단순한 음식에서 시작하여 음식재료를 하나씩 추가하며 그 간격은 3~4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간격을 1~2주 정도로 하여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습진, 두드러기, 설사, 구토, 복통, 천명, 천식)이 있는지 확인
- 생후 4~6개월이 되면 쌀미음부터 시작하고 점점 농도와 굳기를 조절
- 이유식 시작은 곡류로 하고 이어서 야채, 6개월 이후는 육류와 과일을 시작, 야채를 처음 시작할 때는 푹 삶아서 곱게 갈거나 체에 내려서 먹이고 과즙은 6개월 이후 시작하며 키위, 딸기, 파인애플, 토마토, 메론 등은 12개월 지나서 줌, 계란은 6개월 이후 끓는 물에 완전히 익혀서 노른자만 먹이고 흰자는 영아가 계란 알부민에 과민할 수 있으므로 12개월 이후에 먹임, 옥수수나 밀가루도 6개월이 지나서 주며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돌이 지나서 줌



2) 수면과 활동

- 영아는 보통 하루 14~1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데, 하루 두 번의 낮잠과 밤잠을 잠, 적절한 수면을 위하여 3~4개월부터는 밤중 수유를 중단
- 놀이는 성장과 발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됨
- 낮가림은 출생 후 7~8개월경이 되면서 영아가 낯선 사람을 피하거나 울음을 통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행동을 말함, 낮가림은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별할 능력이 생겼다는 뜻, 여러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이 주로 집 안에서 어머니하고만 지낸 영아의 경우 특히 낮가림을 심하게 하는 반면, 그와 대조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영아는 낮가림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음, 낮가림을 감소시키기 위해 영아에게 가족 외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



- 낮가림과 마찬가지로 분리불안 역시 그 시작시기와 강도에 개인차가 있음
- 노리개 젓꼭지를 빨리려면 일찍부터 빨리고 생후 4~5개월이 되면 과감하게 끊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6개월째는 끊는 것이 좋음
- 노리게 젓꼭지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세까지는 노리게 젓꼭지를 빼라고 해서 병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함
- 노리게 젓꼭지를 땅에 떨어뜨릴까봐 줄에 매달아 목에 걸어주는 것은 노리게젓꼭지에 걸려 아기 목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옷에 고정하는 집게를 사용



3) 치아관리

- 치아는 젖니와 영구치가 있으며 젖니는 20개, 영구치는 32개
- 치아가 올라오는 동안 음식을 씹게 하거나 치아 발육기를 적절한 월령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움이 됨
- 어금니가 올라오면(약 18개월) 그때부터는 꼭 칫솔을 사용



아동간호학

4) 예방접종

-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는 현재의 예방접종상태, 예방접종으로 인한 과거의 반응, 과거와 현재의 질병에 관하여 사정하여야 하고 예방접종의 목적과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함
- ❖ DTaP(디프테리아 독소이드, 파상풍 독소이드, 정제 백일해 항원) 혼합백신으로 하며 기본접종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추가접종은 15~18개월과 4~6세에 접종 -> 만 11~12세에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추가접종(Td) 권장
- ❖ 소아마비(Polio) -> 기본접종 3회는 생후 2, 4, 6개월에 실시하고 추가접종은 4~6세에 함



- ❖ 홍역, 풍진, 이하선염(Measles, Mumps, Rubella) -> 홍역은 모체에서 받은 면역체가 있으므로 12~15개월에 일차 접종을 하고 4~6세에 추가 접종.
- ❖ 일본뇌염 -> 사백신의 경우 1~2세 사이에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년 후에 다시 접종하며, 6세와 12세에 추가 접종하여 총 5회 접종.
- ❖ 수두(Chicken pox) -> 2005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됨



5) 사고 예방

- 사고는 영아기 동안 손상과 사망의 주된 원인

(1) 이물질 흡인 - 영아는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감,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머리와 목을 지지하고 아기 몸을 60도 정도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양견갑골 사이를 힘차게 5회 친다.

(2) 추락 - 보호할 난간이 없는 높은 곳에 영아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바닥이 미끄럽거나 젖은 곳에 아기를 두지 않는다.

(3) 화상 - 콘센트는 안전제품으로 막아둬, 조제유나 모유를 데우기 위하여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는 경우 젓병은 별로 뜨겁지 않더라도 안의 내용물인 조제유나 모유는 아기의 피부와 점막을 손상할 정도로 높은 온도가 될 수 있음



2. 영아의 건강문제

- (1) 부적절한 수유(역류, Regurgitation) -> 역류는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짐
- (2) 영아 산통(Colic) -> 일반적으로 생후 2~4주경에 시작되어 3~4개월이 지나면 사라짐, 산통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유에 대한 민감성, 공기를 많이 삼키는 경우, 너무 빨리 수유하는 것, 과식, 영아의 정서적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수유 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세를 세워주고 트림을 반드시 시킨 후 오른쪽으로 눕혀둠, 영아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영아를 엎드린 자세로 손바닥으로 받쳐 안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임



3) 기저귀 발진 -> 기저귀를 빨 때 세제나 표백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충분히 헹궈내지 않아 기저귀에 세제 찌꺼기가 남아 있을 때에도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 있음,

예방법 : 수시로 확인하고 자주 갈아준다, 깨끗이 씻어 준다, 영아 엉덩이를 닦아줄 때에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아의 엉덩이에 습기가 차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준다.

4) 영아 돌연사 증후군 -> 95%는 생후 6개월 미만에 발생하고 수면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남, 옆드려 자는 자세의 경우 바로 누워 자는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빈도가 높음



5) 법정감염법 :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증을 말함

- 수두 : 발진 후 7일간 격리
- 풍진 : 임신 초기 여성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함
- A형 간염 : 개인 위생 강조
- 백일해 : 밤에 짧고 발작적인 기침이 특징적
- 소아마비 : 대변주의
- 성홍열 : 딸기혀로 진행됨
- 살모넬라 : 대변과 토물 주의



Thank You

• <http://ecampus.hallym.ac.kr>

